

TV 프로그램

\*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

Table with 5 columns (KBS1, KBS2, MBC, KBC-SBS, EBS) and multiple rows of program listings with times and titles.

“아이들은 좋은 세상에 살길”

배두나 '브로커' 행사 역
“역할보다 작품 자체 우선”
넷플릭스 '리벨문' 촬영 중



영화 '브로커'의 배두나 /CJ ENM 제공

“나보다 어린 사람들, 아이들은 저보다
나와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
해요. 요즘 그런 작품이 끌리기도 해요.”
배두나는 최근 몇 년 사이 행사사건을
매개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을 유
독 많이 했다. 지난달 칸영화제에 초청된
'브로커'의 수진과 '다음 소희'의 유진은
모두 행사다.
지난 8일 화상으로 만난 배두나는 “경찰
역할을 딱히 선호하지는 않는다. 감독님들
이 저를 그렇게 쓰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
은 것 같다”면서도 “영화로 만들었으면 좋
겠다고 생각한 소재를 고른 것”이라고 말
했다.
배두나는 20대를 지나면서 자신의 역할
보다 작품 자체를 먼저 본다. “어떤
작품 안에 내가 있고, 내가 어떻게 쓰이는
지를 봐요. 그러다 보니 공교롭게 그런 역
할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
'브로커'는 아기판대 브로커 일당을 쫓
는 행사 수진의 시선으로 시작한다. 수진
은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기보다, 관객과
영화 사이의 메시지 역할을 한다. 간혹 독

백을 통해 영화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한
다.
배두나는 스크린에 묘사되지 않는 수진
의 개인사를 염두에 두고 연기했다. “아이
를 한번 낙태한 여자예요. 그게 마음 한 켠
에 계속 남아있고,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
은 하지 않았다고 합리화하면서 살아온 여
자로 접근했어요.”
배두나는 '친한피'로 불리는 고레에다
히로카즈 감독과 가장 가까운 한국배우
다. 2009년 '공기인형'으로 맺은 인연이
14년째다. 배두나는 '브로커'로 다시 만난
고레에다 감독을 두고 “가장 존경하는 감
독이고, '공기인형' 때부터 '남바런'이었

다”고 말했다.
“‘공기인형’을 찍을 때 감독님께 많은
도움과 애정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촬영했
어요. 이번에 한국 배우·스태프들과 한국
에서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, 제가 받
은 만큼 헤드리고 싶었죠.”
배두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잭 스
나이더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'리벨문'을
촬영 중이다.
배두나는 “한국에서하는 행사에 참여하
지 못해 안타깝지만, 두 영화가 함께 칸영
화제에 초청돼 저에게는 특별한 해”라며
“제가 아마 한국에서 가장 늦게 영화를 볼
것 같다”며 웃었다. /연합뉴스

‘액션 장인’ 장혁, 킬러로 복귀

‘더 킬러: 죽어도 되는 아이’



‘더 킬러: 죽어도 되는 아이’ /아센디오 제공

‘액션 장인’ 장혁이 킬러로 돌아온다.
장혁은 지난 8일 영화 ‘더 킬러: 죽어도 되
는 아이’ 제작보고회에서 “거친 호흡의 퍼
포먼스가 아니라 목적을 갖고 가다 보니
액션이 나오는 느낌을 연기했다”고 말했
다.
오는 7월 개봉하는 ‘더 킬러’는 은퇴 이
후 성공적 재테크로 호화롭게 생활하던 옛
킬러 의강(장혁 분)의 이야기다. 의강은
제멋대로 행동하는 여고생 윤지(이서영)
를 때린다. 윤지가 납치되는 사건이 벌
어지면서 의강의 ‘킬러 본능’이 되살아난
다.
장혁은 “윤지를 구하러 가는 과정에 액
션으로 단서를 찾고, 다음 장소에서 다시

배우 한예리 올해 초 결혼
배우 한예리가 결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
려졌다.
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한예리가
비연예인 배우자와 백년가약을 맺었다고
9일 밝혔다.
이어 “두 사람은 어려운 시국임을 감안
해 올 초 서울 모처에서 가족들이 참석하
는 상례례를 겸한 간소한 식사 자리를 가
졌고, 별도 예식 없이 평생 동반자가 되기
로 서약했다”고 전했다.
2008년 독립영화 ‘기린과 아프리카’로
미장선 단편영화제에서 연기상을 받으며
이름을 알린 한예리는 영화 ‘코리아’
(2012), ‘해무’ (2014) 등에 출연했다.
지난해에는 아카데미 시상식 6개 부문
후보에 오른 영화 ‘미나리’로 주목받으며
서 할리우드 매니지먼트사 에코 레이크 엔
터테인먼트와도 계약했다. /연합뉴스

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-766-1818 www.esazu.com 6월 10일 (음력 5월 12일)

Table of daily fortune tellings with zodiac signs (子, 辰, 申, 酉, 寅, 午, 卯, 未) and corresponding text.